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창세광장 구국기도회설교
10월10일(화)

주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를 구하소서

(예레미야 4:1-10)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지난 월요일(10월9일 오전 10시30분) 북한의 김정일은 마침내 폭탄을 등에 메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자멸행위를 함으로 자신은 물론 우리 민족 전부가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① 우리가 북한에 핵 인질로 끌려 다닐 것인가,
- ② 우리가 핵을 개발하여 대응할 것인가,
- ③ 미국의 핵우산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중단 선언을 할 것인가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이 순간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자기 조국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본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리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하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1. 전쟁은 선포되었고 원수의 내침은 널리 알려졌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수년 전에 예언자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고 마침내 심판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5,6절).

바벨론 왕과 그 군대들이 북쪽에서 큰 재난을 갖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숲속에서 나온 사자처럼(7), 사납게 질주해오는 폭풍처럼(11), 빠른 회오리바람처럼(13), 저들이 핵을 갖고 으르렁거리며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 왜 이 같은 위협과 위기에 직면했나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17절).

여호와와의 주권에 저들이 도전한 연고로 이스라엘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간 한 사 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개인의 숨겨진 죄, 민족적으로 지은 죄를 먼저 찾고 통회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반도 내에 유일 합법정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죄입니다.

②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우리의 우방 미국은 배척하고 악의 축(Axis of Evil)이요, 폭정의 전초기지이며 불량국가로 분류된 무신론을 이념으로 삼는 북한 공산집단과는 동족이라는 이유로 악과 동침하는 야합을 해왔습니다.

③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으니 우리를 속인 것 아닙니까”(10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아직 희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1절).

오늘 김정일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줄개로 거짓말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령통치로 다스려지고 있는 북한은 김일성의 유헌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자기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온 세상에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 십 만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핵폭탄 실험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가증스런 김정일과 가증한 공산주의 우상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 백 만 명의 생명을 전쟁과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과 야합한다면 어 또한 우리들의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제 이 백성의 살길은 ‘나의 목전에서’ 즉 모든 곳(정치, 경제, 교육, 사회)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바른 국가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경계를 정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는 1948.5.31 제헌국회 개원 시 임시의정 이승만 박사의 제의로 이윤영 목사 의원의 기도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라”(2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6.25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Time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IQ 최상위권 국가요 IT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 시려고 세우신 선택받은 민족이니 조국에 대한 바른 국가관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국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민족 혈연공동체로서의 국가관은 낡은 개념입니다. 현대의 국가관 중에는 공동이익집단 개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공동이익집단이라도 최소한의 가치와 윤리의 체계가 서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라고 했고(렘 4:2) 잠언 기자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잠 14:34)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노예처럼 억압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공갈하는 공산집단과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진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진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 더 이상 말장난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공평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옳게 여기는 것 -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사학법개정, 국보법 해체주장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3,4절).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마음의 혁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즉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민족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상 숭배, 거짓 위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굶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8절). 우리는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시44:22,26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 대회 은혜 중에 진행돼

- 태신자카드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토록 -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당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회개와 도고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2006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 24시간 연속기도를 드리고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일제히 공동의 기도제목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한 오늘은 주부에 사명자 대회 태신자 카드를 간지로 삽입하였다. 태신자는 성도 주변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

태아를 잉태하여 열 달 동안 온갖 정성과 기도로 양육하고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도고의 기도를 하며 전도에 힘써 마침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받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어둠에서 방황하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24시간 연속기도회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책임 있게 기도에 참석하여 국가가 어려운 이때에 세움 받은 제사장된 교회의 성도로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1주 앞으로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 22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2006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는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다음 주일(22일)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여기서 선발된 성도들은 27일(금) 본선을 갖는다.

성경암송대회 본선은 교육1국, 교육2~5국, 영어

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를 기준으로 채점한다. 본선에서 입상한 이들은 10월2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며 암송도 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은혜로운 성경암송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비전발견 위한 중·고등부 연합찬양집회

21일(토)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홀 - BIM 워십팀과 흥민기 목사 초청

교육위원회(위원장:김세재 장로)는 10월 21일(토) 교육2국 중·고등부 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비전발견을 위한 연합찬양집회"를 갖는다. 진학과 학교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주신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거듭나기 위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번 찬양집회는 BIM(Bridge Impact Ministry)의 찬양사역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BIM 대표 흥민기 목사(탱크 목사)가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찬양집회 후에는 8층 만나홀에서 초청된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사명자 대회 기간 중 갖는 이 찬양집회를 통해 주

위의 믿지 않는 친구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며 중등부는 10월 22일(주일) 오후 6시30분에 홈커밍데이를 통해 잃은 양 찾기와 새친구 환영의 행사를 가지고, 고등부는 10월 22일(주일) 10시에 601호에서 "친구초청잔치"를 갖고 찬양집회에 참석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고등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찬양집회에는 학부모들을 함께 초대하여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의미를 갖는다. 학부모들께서는 웨스트민스터 홀 뒤쪽에 지정된 좌석에 미리 오셔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위한 기도 결연 모임

오늘 오전 10시 40분 601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결연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601호에서 열린다.

이미 기도결연을 통해 기도의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과 수험생들,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부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15기 찬양 양성반 개강

오늘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제 15기 찬양대 양성반이 오늘 개강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7주 동안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발성법, 호흡법, 악보 보는 법 등 기초 이론과 실기를 배우게 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신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 601호에서 받는다.

-성서 속의 고장들-



이스탄불의 소피아사원

터키는 대대로 웅망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동서를 아우르는 문명의 교차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제국을 이룬 나라이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으며,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아라랏 산과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어머니 마리아가 피신하여 머물렀던 마리아의 집 등도 모두 터키에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터키는 구약과 신약의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는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생활했던 안디옥, 바울의 고향 다소와 그가 주로 말씀을 전하던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등방의 일곱 초대교회, 즉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모두 터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대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공식인정하고, 국교로 선포했던 당시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 이스탄불이라는 이슬람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순례팀이 방문하게 될 이스탄불은 동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오스만제국, 3대 대제국의 수도였으며,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로도 불리웠던 이 아름다운 고도(古都)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수 많은 유적과 그에 얽힌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현대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행정, 외교의 중심지라면 두 번째로 큰 도시 이스탄불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소정(편집부)

Pilgrims' Vision Tour 기도회 및 설명회

기도회: 매주일 찬양예배 후 501호

설명회: 10월20일(금) 오후 5시 501호

서울교회 성지순례단을 위한 기도회가 출발 전까지 매주일 찬양예배 후 501호실에서 열린다. 또한 우리교회와 함께 성지순례를 진행할 CBS Tour에서 설명회를 20일(금) 오후 5시 501호에서 갖는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회와 설명회에 참석하여 여행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또한 여행경비전액을 10월 20일 이전에 사무국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여권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계광장 구국기도회 취재 - 10월10일(화)

주를 위하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조국을 위한 회개 기도운동 - 26일(목)까지 계속



지난 월요일 대한민국 온 국민들은 마치 봉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졌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 무리들이 온 세계가 우려하던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 주시기를 간구하던 기독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모임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종단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청계광장에서 모여 미스바 회개 기도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화요일은 우리교회 이종은 목사께서 '주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를 구하소서' (예레미야 4:1-10)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본지 1면 참조)

2600년 전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어찌면 이렇게도 당금의 우리 현실과도 꼭 맞아 떨어지는 지 참으로 앎담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날 한자리에 모인 2500여 명의 성도들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눈물로 간구하였다.

주께 간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지금도 자신의 처소에서 눈물의 기도를 울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길 것을 우리는 믿는다.

청계광장에서의 기도집회는 26일(목)까지 계속된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요청된다.

(유태서-편집부)



시명자의 기도-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이태훈 목사(3,4교구 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우리들은 크고 두려운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김정일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북한 핵 실험 소식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떨어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세계가 놀랄만한 큰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목을 곧게 세우며 마침내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등을 운운하였고 민족적으로는 우상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나라가 창궐해가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을 용납하며 동화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어려울만큼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죄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가득 찬 이 나라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넘치도록 좋은 것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없이 좋은 것만 주셨지만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일 50일 전을 앞두고 사명자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궁금해요**

“
**시편을 5권
으로 나누는
기준은?**
”

성경, 교회사용 용어
중 이해가 어려운 것
이나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
는 코너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음과 같이 5권으로 나누어진다.

- 1권 : 시1-41편
- 2권 : 42-72편
- 3권 : 73-89편
- 4권 : 90-106편
- 5권 : 107-150편

이처럼 시편을 다섯 권으로 분류한 것은 무엇보다 모세 오경과 병행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시편 다섯 권의 책은 각각 '아덴'이나 '찬양할지어다'와 같은 찬가로 끝을 맺고 있다.

시편의 다섯 권 각각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호해서 부르고 있다. 예컨대, 1권에서는 273번에 걸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스라

엘의 하나님의 개인적 이름이다. 같은 1권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보다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15번이 사용되었다. 2권에서는 이 두 이름이 사용되는 비율이 1권과는 정반대이다.

즉, 2권에서는 여호와가 74회, 엘로힘이 207회 사용되었다. 3권에서는 여호와 13, 엘로힘 36회, 4권과 5권에는 여호와 339회, 엘로힘 7회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시편은 또한 그 형식, 혹은 지은이가 누군가에 따라 나뉘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1권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인 반면에 2권에는 주로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2006 성경통독사 경회를 마치고

명절과 성경읽기

손혜신(이스라엘 선교사)

우리의 고유명절에는 비신앙적 요소가 있기에 명절과 신앙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 중요한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나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종교적이며 동시에 농업적 성격을 띤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 칠칠절은 밀 추수, 초막절은 올리브, 종려 열매와 같은 여름 작물의 추수와 관계된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 칠칠절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초막절은 초막에 거하던 광야생활을 상기시키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 특히 초막절은 미래의 절기라고도 부르는데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이다(스 14:16).

유대인의 전통 달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이다.

준으로 하는 음력이다. 흥미롭게도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날짜가 일치한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절기를 지켰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서울교회는 성경의 역사서를 통독했다.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가족들과 모여서 놓고 어떤 이들은 조상상배를 하는데 서울교회는 모여서 성경통독을 하더니 처음에는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바로 추석날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며 우리의 성경 읽기 행사가 너무도 성경적임을 보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조상을 섬기고 감사를 드려왔다. 그런데 기독교 백년의 역사를 가진 지금도 우리는 명절에 대한 새로운 모범적 예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명절이 되면 먹고 즐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중등부 홈커밍데이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

- 10월22일 주일저녁 6시30분 만나홀 -

안선영(중등부 교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모할 때 더 크게 주어집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다면 분명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중·고등부 연합찬양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22일 주일 저녁 6시 30분, 8층 만나홀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라는 주제로 우리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인 중등부에 기꺼이 융해되는 즐거움을 누리실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만나지 못했

던 우리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윤영국 목사님, 또 많은 중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6년 가을시즌 화요 정오음악회

10월17일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2006년 가을시즌 화요정오음악회 두번째 순서로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가 열린다.

첼로- 김효영, 오르간- 이정희 선생이 연주한다. (관람석-본당3층)

차량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기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일 1, 2, 3부 예배 시 교회 정문 앞 도로가 혼잡하니 승하차 대기를 자제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일 2부예배 시작전(10:30-12:30)에는 출차를 통제하니 성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교회 지하 주차장이 협소하니 항존직 직분자(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그 가족 차량은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대수:70대)

· 새가족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 질서를 위해 차량명부를 접수하고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시 교회정문 앞 노상주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부에서 봉사하실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7일(화) 경북안동 경안신학대학에서 연극학술세미나 강사로 강의한다.19일(목) 북음신양동지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개업: 이돈아 집사(1교구) 아트리즈미술교육원(도록렉상상가 507-2호) T. 577-1547-8

양인수 집사(11교구) (주)블루 브리지 송파구 송파동 현대레이크빌 T. 2202-2208

■ 독남: 박형준 조수현 성도가정(3교구, 박석현 성도 김점숙 집사 아들 가정) 10/11

■ 윤영국 목사 주소변경: 송파구 오금동 115-9 3층 T. 431-0531

■ 기증: 김세재 장로 가정에서 사랑부에서 점퍼85점을 기증하였다.

■ 금주의 식사/떡: 호산나 학교 학부모 일동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 주간식당봉사: 뱀뱀전도회(10월8일) 마리아전도회(10월15일)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06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 Pilgrims' Vision Tour(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 피택자들의 시험과 면접을 통해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 북한 핵실험 무용하게 하시고 전회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